

나주 천연염색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했다

나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 자산인 천연염색이 미국에서 호평을 받으며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최근 재단 관계자들이 미국 메릴랜드주를 방문해 메릴랜드주립대 미대(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와 천연 염색 교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래리 호건 주지사 부인(퍼스트레이디)이자 메릴랜드 미대 교수인 유미호건 여사 및 데이비드 보겐(David Bogen) 미대 학장,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김왕식 상임이사, 허복규 나주시 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상임이사 일행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 9월5일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한인 출신 주지사 부인인 유미호건(한국명 김유미·나주 출신) 여사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해 나주 다시면 화진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을 찾아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내용은 ▲작물 및 천연염색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유지 발전 ▲교류 및 천연염색 워크숍을 통해 천연염색문화재단과 메릴랜드주립대 미대 교수진 및 학생들의 시너지 효과 촉진 ▲메릴랜드주립대와 한국의 천연염색 교류를 통해 예술적 및 산

천연염색재단, 미국 메릴랜드 미대와 교류 발전 MOU 체결
예적·산업적 발전 공동 협력...문화센터·업체 등과 교류회도



지난달 23일 김왕식(맨 왼쪽)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데이비드 보겐(David Bogen·오른쪽 두번째) 메릴랜드 미대 학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메릴랜드주 래리 호건 주지사 부인이자 이 대학 교수인 유미호건(왼쪽에서 두번째) 여사 등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제공>

업적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이다. 업무협약을 맺은 메릴랜드주립대 미술대학은 워싱턴과 볼티모어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 대학으로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 대학 랭킹 기준 미술

College of Art, MICA)로 불린다.

재단은 또 방문기간 타운슨대학(Towson University) 아시안예술문화센터(Asian Arts and Cultural Center)와 메릴랜드주 덴턴(Denton)의 섬유아트센터(Fiber Arts Center of the Eastern Shore, FACES), 볼티모어에 있는 스포츠용품 브랜드 언더아머(Under Armour) 본사와 볼티모어미술관에서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을 소개하고 한국천연염색에 대한 강연과 교류회를 가졌다.

재단 관계자들은 이번 메릴랜드주 방문길에서 가는 곳마다 한국의 전통 천연염색에 대한 높은 관심과 향후 활발한 교류를 희망하는 제안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나주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천연염색을 매개로 나주시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이 한국 천연염색의 해외 진출의 촉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왕식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대학과 업체가 천연염색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도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마이크와의 업무협약은 무엇보다도 나주와 한국천연염색을 미국 내에 알리고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3개 기업 참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개최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30일 빛가람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2018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사진)를 개최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등 구인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1대1 매칭 일자리 시책이다.

이날 만남 행사에는 남부산전(주)과 동우전기(주), 이디에스(주) 등 나주 혁신산단에 입주한 3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 구직자와의 1대1 현장 면접과 상담을 통해 구직·생산직·설계직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을 채용했다.

행사를 주관한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카페, 빛가람동 일자리정보센터 등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시민들의 구직등록 및 상담,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이 센터로 구인신청을 하면 집중적인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면접 등을 통해 인력 채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재승 나주시 일자리정책실장은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이런 만남의 장을 더욱 내실 있게 활성화시키고, 특히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여성·청소년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 호응

승·하차 정보 문자메시지 전송

나주시가 여성과 청소년 등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한 귀가와 편의를 돕는 '안심 문자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나주시는 심야 시간 등에 나홀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스마트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안심택시 앱(APP)을 설치한 승객이 블루투스 단말기가 부착된 택시에 탑승하면 자동으로 인식해 사전에 지정된 수신자에게 승·하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비접촉 단말기 방식이다.

타 지자체에서 도입해 서비스 중인 근거리 무선통신(NFC)과 QR코드를 이용한 접촉식과는 승·하차시 자동으로 인식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고, 안전성과 편리성이 한층 더 강화된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나주시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사업비 2152만원을 들여 개인택시 155대, 법인택



나주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 귀가 서비스' 앱이 장착된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시 114대 등 총 269대의 택시에 무선 블루투스 기반의 비접촉식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다.

안심 귀가 서비스가 제공되면 밤늦게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과 학생, 회식 후 술에 취한 승객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범죄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의 영업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안심귀가 서비스가 도입되면 심야에 귀가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마약류 작물재배 특별단속

나주시·광주지검 8일까지

나주시가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을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재배 특별 단속을 벌인다.

나주시는 광주지방검찰청 등과 함께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3일부터 8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나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을 피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몰래 이뤄지는 밀경작(密耕作) 우리 지역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규제 대상인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잎·줄기 등에 털이 들어 있음)'로 잘못 알고 1주일이라도 재배했거나 상비약으로 쓰려고 소량 재배한 경우에도 관련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나주=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경찰 '치매노인 실종 제로' 공조



나주시 보건소는 최근 선해병 보건소장과 김수진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와 나주경찰서는 지역 치매노인 환자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한 '치매노인 실종 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상습 실종 치매노인 중 배회 감지기 보급대상자 선정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경찰서에서만 가능한 치매노인 사전 지문등록 시스템을 나주시 치매안심센터에 확대·구축해 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치매노인 환자의 체계적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며 “치매안심센터 내 사전지문등록 활성화를 통해 지역 치매노인의 안전한 노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